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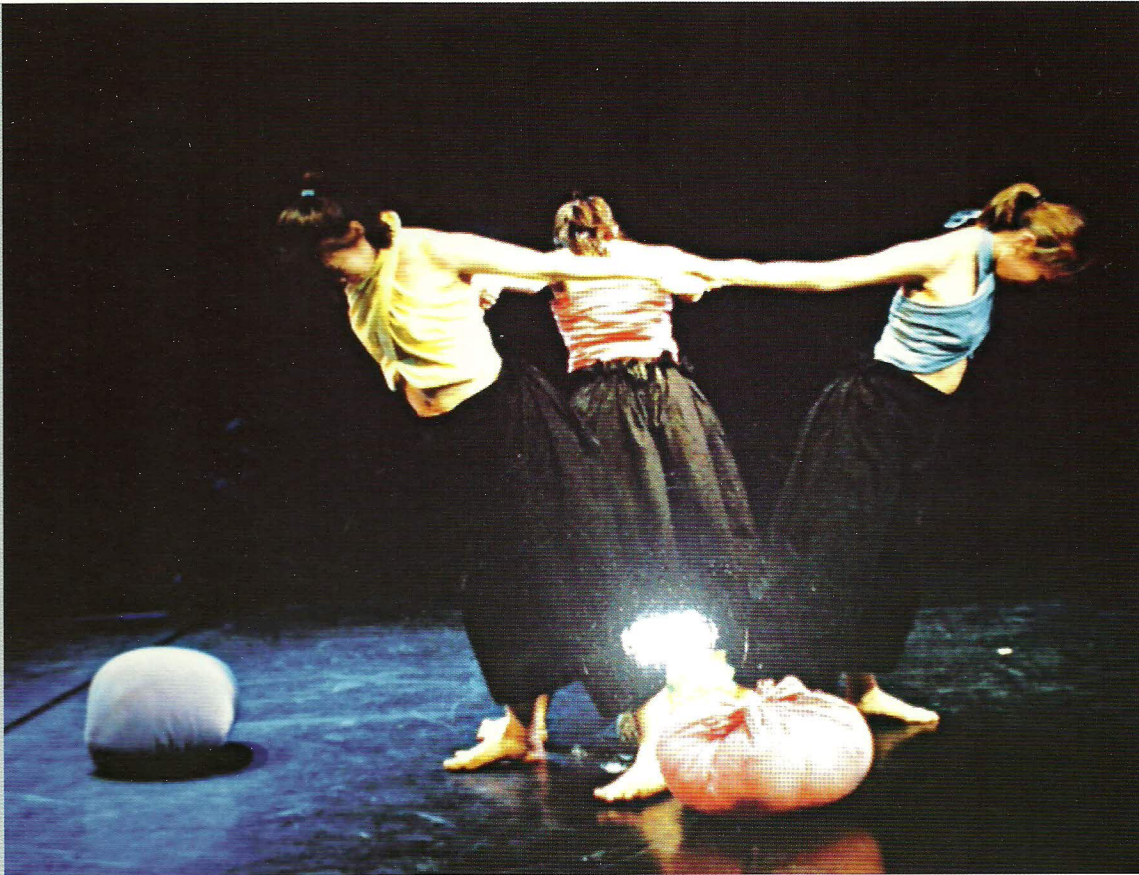
대학무용제 제16회

2005 COLLEGE DANCE FESTIVAL

2005년 9월 8일(목) ▶ 9일(금)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 부산대학무용진흥회 || 후원_ 부산광역시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의 방

주어진 공간과 환경.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여자들의 삶의 이야기..



정귀인 교수

안 무 II 정귀인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안무보조 II 박종수

훈 련 II 이미라

음 악 II Dawn Buckholz(뉴욕대학 교수), Tom McGrath 외

출 연 II 이미라 육상현 이운정 김소영 김수희 박주영

정지윤 최은경 하지원 강지애 권윤희 김보경

김현진 백현지 이유경 최보람

Let's go “수평선으로”

현대의 우리는 점점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

꿈 · 희망 · 내일 · 인간애 마저도...

"가자 수평선으로" 저 아득한 수평선엔 우리의 비전(vision)이 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사랑이 있다. 우주 질서가 원래의 배열질서를 유지해 영원히 계속하여 멈추지 않는 원형 회귀적 운동관은 무한한 회복 가능성과 재생에 대한 바람을 수평선은 달게 한다.



이영희 교수

안 무 || 이영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지 도 || 유현숙 박성호

음 악 || Amjd Au kchan-kaga shree

출 연 || 오소연(특별출연) 최의옥 김영찬 장영진 김송미 박경미

박홍점 조은미 이은경 이상민 최정화 김슬기 이남정 허수빈

김동현 박소영 박효인 정은주 최은진 최혜림 이꽃샘 배효경



Tattoo

자극적인 문신,
보이기 위한 뚜렷한 자국
내면을 포장한 동질의식
크고 질수록
호기심과 부담은
비례하는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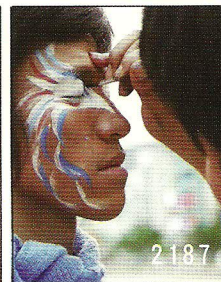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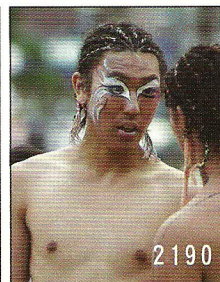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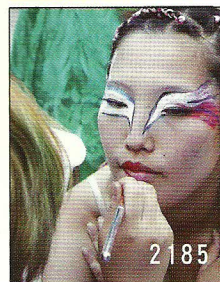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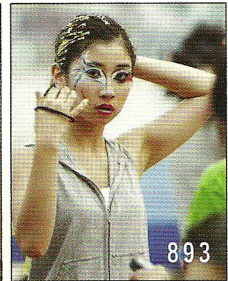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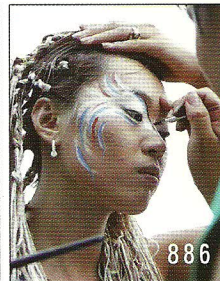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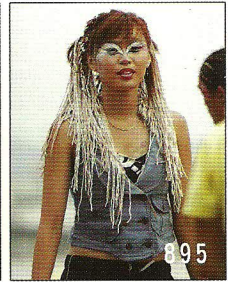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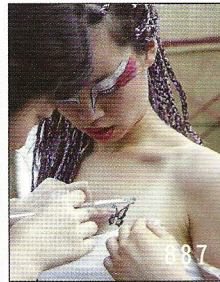
김희은 교수

안 무 || 김희은 (부산예술대학 실용무용과 교수)

음 악 || 김상화 (부산예술대학 교수)

분 장 || 유은희 (부산예술대학 교수)

출 연 || 최정화 하정오 오승택 최병훈 선정찬 이상엽 김주현
엄민정 박근혜 정재은 곽진주 김은영 장은진 구민정
박미나 이재형 김정윤 강지연 김수경 김민주 이동경
박종임 박현정 황진주 정혜숙 이현주





The Nutcracker 中에서 눈의 나라

때는 겨울이고,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의 나라 제왕과 여왕이 어린 방문객을 맞이 위해 다가온다. 그들은 눈송이에 동반되어 춤을 춘다. 눈송이 왈츠는 호두까기 인형의 전편을 통해 가장 창의력이 풍부한 작품이다. 흰색으로 차려입은 여성들의 군무는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크레센도를 반영하고, 질풍같은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소용돌이치는 그룹도형은 겨울의 눈보라를 뜻하는데 이것은 점차 천사와 같은 하모니로 진정된다.



김복선 교수

안 무 || 김복선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음 악 || Peter Ilyitch Tchaikovsky

출 연 || 김연희 이순호 김주은 서은미 신세정 표혜원 박화복

엄부경 박미화 이은교 조수현 조혜진 주정현 류지연

정진영 고혜란 김경란 명세은

고집쟁이 딸 中 1막 2장

새벽을 알리는 수탉과 그 뒤를 따르는 암탉의 모습이 한가로운 가운데 바쁜 농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농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즐겁게 춤을 추는데 미망인인 시몬부인은 외동딸인 리즈와 마을 부자인 토마스와 그의 아들인 아랭과 등장한다.

시몬 부인은 토마스의 아들 아랭과 자신의 외동딸인 리즈를 결혼시키려고 계획한다.

그러나 리즈는 저능아인 아랭보다 성품이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 콜라스를 사랑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몰래 빠져나온 리즈와 콜라스는 자기들의 진실한 사랑과 순간적인 행복을 파드듀로 표현한다.

오늘 공연은 마을 사람들의 춤과 리즈와 콜라스의 파드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안 무 Ⅱ 장 오메르

재구성 Ⅱ 김정순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음 악 Ⅱ 루이스 페르디앙 헤롤드

초 연 Ⅱ 파리 오페라(1828)

출 연 Ⅱ 이연순 김수희 최은정 이영경 김미경 엄한나 이유하

김소연 이나영 이선영 이수정 한지은 방정남 박성향

박운경 김민경 강선경 황효경 김현애 박귀섭 강용기

심규승 김재만 강정훈 전종문



김정순 교수



회향(回向) VIII

인간의 육근(六根)은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뜻(意)으로
벌어져 나타나는 팔만사천 갈래의 번뇌를 마음의 여행으로
회향(回向)하여 돌아간다는 뜻이다.

“미쳐 헤매며 신 적이 없었노라니 이것이 헛꽃(空華)이런가.
빈 몸동아리 헤진 옷 한 벌에 목메어 세상을 탄식하노라.
이 마른해골이여 누구를 위하여 바빠하는가”



이윤자 교수

안 무 II 이윤자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지 도 II 이규운

훈 련 II 이봉진

음악편집 II 서상환

출 연 II 임나영 윤주영 이유지(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대학원 재학)

김민아 박은혜 안민진 채송이 최현지 허유진 황은진

김빛나리 김희연 노민경 박수정 박유경 백 송 서다경

이서린 이새별 이연정 전해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삶의 단상들을 이미지적 움직임으로 표출하여 조화롭게 발전시켰다.



한은주 교수

안 무 II 한은주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음 악 II Java "Gambirsawit"

출 연 II 서은옥 이경미 최정현 안희경 박상희 김미라

최정화 이은주 백상은 지숙정 강동완 임선희 임소정

